

31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성공이 끝은 아니다.

-아인슈타인

양to the치기 31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측은지심(惻隱之心)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주희로부터 벗어나 있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측은지심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데, 주희는 이 측은지심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그에게는 측은지심이 마지막 결과이고 인간 본성이 원인이 되는 셈이다. ㉣ 이와 달리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주희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 이 지점이다.

(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성, 권형, 행사가 그것이다.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른 실천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라) ㉥ 가령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다면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는냐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마)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희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1.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 ② (나):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 ③ (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 ④ (라):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 ⑤ (마):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2. ㉢에 대해, 주희와 차별되는 정약용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 ②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든다.
- ③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 ④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
- 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3.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상황에서 대피하던 ‘갑’, ‘을’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잠시 후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갈등에 빠진다. ‘갑’은 결국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피하고, ‘을’만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는다.

- ①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4. 문맥과 독서 표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문맥상 이 글의 핵심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이 글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 이유, 근거가 됨을 보여주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해 보아야겠어.
- ③ ㉢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하는 표지이므로, ㉢의 앞뒤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어.
- ④ ㉤는 앞에 나온 내용을 대신하는 지시어이므로, ㉤가 앞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보아야겠어.
- ⑤ ㉣는 뒤에 가정된 상황을 제시한다는 표지이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 중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잘 구분해서 읽어야겠어.

양to the치기 31일차

[5~7]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 한다. 경찰작용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발동의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 '위험'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무엇인가?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는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묶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한다면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관한 예측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찰작용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우선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모든 경찰작용의 행사는 법률을 근거로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주는 운전면허와 같은 각종 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公益)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만 경찰작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때 얻는 공익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의 운전자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경찰작용이 법에서 정해진 위험 방지 작용의 테두리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영업허가 취소권을 가진 공무원이 친분 관계에 있는 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경쟁하는 다른 영업자의 영업을 취소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를 관련 개념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② 경찰작용 행사의 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 ③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고 있다.
- ④ 경찰작용의 제한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작용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해야 한다.
- ②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손해란 외부의 영향으로 공동의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④ 경찰작용은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있어도 발동해야 한다.
- ⑤ 경찰작용은 공익이 훼손되는 특정한 범위에만 한정된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게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영업 행위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근 학교장에게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장은 갑의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①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 ②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 ③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의 의견을 받고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④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⑤ 교육장이 갑의 사익보다 유흥업소 영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양to the치기 31일차

[8~10]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가)
 ㉠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 고향은 아니러뇨.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뿔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A] 이제 다시 것처럼 깨끗한 기도 만날 수 없으리
 장독대 위 정한수 담긴 흰 대접에서
 은은한 빛이 뿔어져 나오고 있었다
 [B] 어둠은 도둑걸음으로 졸졸졸 고여오다가
 흰빛에 닿으면 화들짝 놀라 내빼고는 하였다
 어머니는 두 볼에 홍조 띠고
 두 손 가지런히 모아
 천지신명께 일구월심 가족의 소원 대신 빌었다
 감읍한 뒷산 나무들 자지러지게 잔가지를 흔들고
 [C] 별꽃 서너 송이 고개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어주었다 그런 새벽이면 어김없이 얼어붙은
 비탈에 거꾸 엎어져 무릎 까진 밤새 울음이 있었다
 풀잎들은 잠에서 깨어 부스럭대고
 바지런한 개울물 들을 깨우러 가고 있었다
 촘촘하게 짜여진 어둠의 천 오래 입은 낡은 옷 되어
 툭툭 실밥이 터질 때 야행에 지친 파리한 달빛
 맨발로 걸어들어와 벌컥벌컥 마셨다
 [D] 광석들 가로 지르는 서울행 기차 목션 기적이
 달아오른 몸 담가오기도 하였고 밤나무의,
 그 중 실한 가지가 손 뻗어오기도 했으나
 정한수는 줄지 않았다
 장독대. 내 생의 뒤뜰에 놓여 있는,
 생활이 타서 갈증으로 목이 마를 때
 [E] 흰빛 내밀어 권하시는,
 내 사는 동안 내내 위안이고 지혜이신 어른이시여,
 - 이재무, 「장독대」 -

8. (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한다.
- ③ 같은 어구를 되풀이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 ④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9. ㉠, ㉡와 관련하여 (가)의 '구름'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 ② ㉠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 ③ ㉡의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④ ㉠과 ㉡의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이다.
- ⑤ ㉠과 ㉡의 괴리를 경험하게 된 화자의 내면세계를 나타낸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A] ~ [E]에 고려되었을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3점]

< 보 기 >

어머니는 늘 정한수 한 사발을 장독대에 올리시고 기도하셨다. 흰 대접을 정갈하게 닦으시고 자식들을 향한 오롯하고 순전한 마음을 정한수에 담으셨다. 그럴 때면 아무도 당신을 범접할 수 없었다. 철없던 시절의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 곁을 벗어나려 했을까. 그러나 순간순간 삶에 지쳐 돌아올 때면, 정한수 정갈한 그대로인 채 어머니는 날 넉넉히 품어 주셨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자리엔 당신 곁을 묵묵히 지켜냈을 장독대만 놓여 있다.

- ① [A]: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 ② [B]: '흰 대접', '은은한 빛', '흰빛'을 통해 '정한수'의 속성을 드러내어 어머니 기도의 정결함을 부각한다.
- ③ [C]: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만물을 감응시킬 정도로 어머니의 정성이 지극함을 강조한다.
- ④ [D]: 화자의 방황과 이탈 심리를 사물을 통해 드러내고, 마르지 않은 '정한수'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과 포용력을 제시한다.
- ⑤ [E]: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삶의 위안자로서의 '장독대'에 인격을 부여한다.

양to the치기 31일차

[11~13] 다음글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어머니는 등 뒤의 작은 시위-그러나 오빠 나뵈대로는 필사적인-에 아랑곳하지 않고 분첩으로 탁탁 얼굴을 두들기고 가늘고 둥글게 눈썹을 그렸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오빠를 번갈아 보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호기심과 찬탄으로 거울 속에서 점차 나팔꽃처럼 보얗게 피어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시집을 때 해왔다는 등신대(等身大)의 거울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흠 없이 온전하고 훌륭한 물건이었다. 눈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남루해져 가는 우리들의 가운데서 거울은, 어머니가 매일 닦는 탓도 있지만, 나날이 새롭게 번쩍이며 한구석에 버티고 있었다. 그 이물감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실체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건지도 몰랐다.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 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게으르게 눈을 깜빡이며 잠에서 깨어나서도, 싸움질을 하다가도,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도 문득 눈을 들면 방의 한구석에 버티어 선 거울이 자신은 볼 수 없는 등까지도 환히 비추는 바람에, 우리는 거울 속에서 낯설게 만나지는 자신에게 경원과 면구스러움을 느껴 옆으로 슬쩍 비켜서거나 남의 얼굴처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거울은 기울여 놓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작게도 크게도 길게도 짧게도 자유자재로 바꾸어 비추었다. 언니와 나는 어머니가 없을 때면 끙끙대며 거울을 옮겨 놓고 그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 놀이**를 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연극 놀이를 했는데 내용은 늘 똑같았다.

젠 멍청이니까 병자나 시켜. 작은오빠의 말에 따라 내가 힘없이 드러누우면 작은오빠는 의사, 언니는 천사가 되었다. 병자는 시종 가냘프게 신음을 하고,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먹으며, 눈을 감고 있다가 죽어서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오르는 것이 연극의 끝이었다. 천사는 할머니의 치마를 둘러쓰고 옷자락을 펄럭이며 머리 주위를 돌다가 내가 머리를 모로 떨어뜨리고 탁 숨을 끊으면 안아 올렸다. 그러고는 화를 냈다.

너무 똥보라서 날 수가 없구나.

천사를 따라 펄럭펄럭 날갯짓을 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연극이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대체로 정말 죽은 체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언니는 나를 마구 흔들며 짐짓 겁에 질린 소리로 호들갑스럽게 말했다.

노랑눈이 죽었니? 눈 떠봐. 정말 죽었니?

의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비집고 입김을 후후 불어넣으며 투덜대었다.

이 바보야, 일어나, 이젠 끝났단 말야.

그러나 나는 천사와 함께 나는 것보다 죽은 체하고 누워 있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그렇게 가만히 있노라면 의사는 계속 주사를 놓고 천사는 다리가 아플 때까지 주저앉을 수 없어 내 작은 계교로 연극은 언제까지나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꽃모양으로 뚜렷이 그리고 하얗게 분이 오른 얼굴을 다시금 분첩으로 탁탁 두드렸다.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책을 읽었다.

㉠ 왓 아 유 두잉? 아임 리딩 어 북.

창 아래, 텃밭 가로 지나가던 사람 두엇이 고개를 빼어 안을 기웃거렸다.

어쩌면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꼭 미국 사람 지껄이듯 하는군.

오빠는 변성기에 접어든, 거세고 뻑뻑한, 그러면서도 여성적인 목소리로 한껏 혀를 굴렀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시험 준비를 한다는 오빠는 저물 때까지 창가에 앉아서 영어책을 읽었다. 아예 책을 덮어 놓고 1과부터 외기도 했다. 우리의 좁은 방은 언제나 오빠의 책 읽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절의 노래였다. 오빠가 방에 없을 때조차 그 소리는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고 있었다. ㉡ 왓 아 유 두잉? 왓즈 유어 프랜드 두잉?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한 오빠가 읽는 것은 피난집에 소중히 감춰 온 중2 교과서였다.

음에 야간 중학교가 생기자 어머니는 말했다. 온 식구가 한 댕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학교를 보내마.

그런데도 오빠는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보풀이 일어 녹녹하고 두껍게 부푼 책에 오빠는 딱딱한 마분지를 덧대어 뚜껑을 만들었다.

사람들 말대로 오빠는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었다.

갖고 놀아도 좋아.

어머니는 싹싹 훑어 바른 빈 크림통을 내게 내밀고 마지막으로 입술 곁에 날카롭게 미인점을 찍은 뒤 일어나, 거울에 옷맵시를 비춰 보았다.

다녀오마.

어머니는 저고리 소매에 손수건을 살짝 찢러 넣고 꽃가지라도 꺾어 든 양 한들한들 걸어 나갔다.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오빠는 탁 책을 덮고 용트림을 하듯 아아 기지개를 켜며 웃웃을 벗어던졌다.

- 오정희, 「유년의 뜰」 -

1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독백체 진술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 사건을 대비해 차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꿈과 현실의 혼재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객관적인 태도로 사건의 경과를 제시하고 있다.

1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진행되는 사건 속에 존재하는 소리라면, ㉡은 '나'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② ㉠과 ㉡이 유사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빠'가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 ③ ㉠은 '어머니'가 분첩으로 얼굴을 두드리는 소리와 대응되며 긴장감이 감도는 방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은 '어머니'의 외출에 대한 '오빠'의 불만으로, '나'와 '어머니'에게 '작은 시위'로 인식되고 있다.
- ⑤ ㉡은 '되풀이해 울리'는 것으로, '나'에게는 '성공'에 대한 '오빠'의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to the치기 31일차

13. <보기>를 참고할 때 ‘연극 놀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놀이의 세계와 일상적인 현실의 세계는 상호 작용한다. 놀이의 세계는 특정한 내적 규칙으로 구축된 새로운 세계로서, 놀이를 통해 인간은 고단한 현실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놀이는 여전히 현실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현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 ① 남루하고 ‘좁은 방’은 인물들에게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고단한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병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천사’와 함께 날갯짓을 하며 방안을 돌아다니는 것이 이 놀이의 내적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병자’가 ‘가냘프게 신음’을 하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의 세계가 놀이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내’가 ‘날 수가 없’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구축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⑤ ‘내’가 ‘작은 계교’를 부리는 것은 놀이를 연장함으로써 현실로의 복귀를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벚나무 아래에 굽어모은 낙엽의 산더미를 모으고 불을 붙이면, 속에 갇혀서 푸스푸스 타기 시작해서 가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람이나 없는 날이면 그 연기가 낮게 드리워서 어느덧 뜰 안에 자욱해진다. 낙엽 타는 냄새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갓 볶아 낸 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암 냄새가 난다. 갈퀴를 손에 들고는 어느 때까지든지 연기 속에 우뚝 서서, 타서 흩어지는 낙엽의 산더미를 바라보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노라면 별안간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연기는 몸에 배서 어느 결엔지 옷자락과 손등에서도 냄새가 나게 된다.

나는 그 냄새를 한없이 사랑하면서 즐거운 생활감에 잠겨서는 새삼스럽게 생활의 제목을 진귀한 것으로 머릿속에 떠올린다. 음영과 윤택과 색채가 빈곤해지고 초록이 전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린, 꿈을 잃은 허전한 뜰 한 복판에 서서 꿈의 꺾어진 낙엽을 태우면서 오로지 생활의 상념에 잠기는 것이다. 가난한 벌거숭이의 뜰은 벌써 꿈을 꾸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탓일까?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참으로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 벌써 추억에 잠기고 감상에 젖어서는 안 된다.

가을이다! 가을은 생활의 시절이다. 나는 화단의 뒷자리를 깊게 파고, 다 타 버린 낙엽의 재를-죽어 버린 꿈의 시체를-땅 속 깊이 파묻고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 속의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도 물론 이런 감격에서부터다. 호스로 목욕통에 물을 대는 것도 즐겁거니와 고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그만 아궁이로 나

무를 태우는 것도 기쁘다. 어두컴컴한 부엌에 웅크리고 앉아서 새빨갳게 피어오르는 불꽃을 어린아이의 감동을 가지고 바라본다.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새빨갳게 타오르는 불은 그 무슨 신성하고 신령스런 물건 같다.

얼굴을 붉게 태우면서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내 팔은 흡사 그 귀중한 선물을 프로메테우스에게서 막 받았을 때의 그 태곳적 원시의 그것과 같을는지 모른다.

나는 새삼스럽게 마음속으로 불의 덕을 찬미하면서 신화 속 영웅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좀 있으면 목욕실에는 자욱하게 김이 오른다. 안개 깊은 바다의 복판에 잠겼다는 듯이 동화의 감정으로 마음을 장식하면서 목욕물 속에 전신을 깊숙이 잠글 때 바로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난다. 지상 천국은 별다른 곳이 아니라, 늘 들어가는 집 안의 목욕실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사람은 물에서 나서 결국 물속에서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

14. 윗글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 ② 비유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여러 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의문문으로 표현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⑤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사색을 전개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 사소한 경험이 때로는 우리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계절과 관련된 ㉠을 통해 ‘화려한 초록의 기억’이 사라져 버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있다.
- ② ‘갓 볶아낸 커피의 냄새’, ‘잘 익은 개암의 냄새’ 등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 ㉠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맹렬한 생활의 의욕’을 별안간 느끼게 된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전에 없이 손수 목욕물을 길고, 혼자 불을 지피게 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⑤ ㉡은 ‘태곳적 원시’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석

②③①⑤③
②①④⑤①
②⑤④⑤⑤

[1~4] (인문) 강신주, 『정약용의 실천적 책임 윤리학』

정약용의 유학 사상의 특징에 대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정약용의 사상을 주희와 비교하여 도덕 감정이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도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주장하는 정약용의 사상은 내면적 수양을 넘은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1.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파악한다.

(나)는 앞서 논의한 도덕 감정과 관련하여 정약용과 주희의 유학 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정약용은 선천적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주희와 공통점이 있지만, 도덕 감정 자체를 선으로 여기지 않는 데서 주희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나)에서는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으로 주체의 자유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정약용은 마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본성, 권형, 행사를 들고 있다. ④ (라)에서 정약용은 도심과 인심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주체가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⑤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은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출제의도] 주장의 핵심을 파악한다.

주희는 도덕 감정 자체를 선하다고 보았지만, 정약용은 도덕 감정 자체를 선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⑤ 도덕 감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둘의 공통된 입장이다.

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행사'란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풀이] ②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본성'을 의미한다. ③ '병'을 구할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및 주체적 선택과 결단의 과정이 드러나 있으므로 '권형'에 해당한다. ④ '을'이 '병'을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도심'에 해당한다. ⑤ '갑'이 '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한 행동이므로 '인심'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글의 표지를 고려하여 독서 방안을 파악한다.

'가령'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정된 상황을 제시하는 표지로, 앞서 논의된 내용이 가정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살펴가며 읽어야 한다. 따라서 ⑤와 같이 가정된 상황과 실제 사실을 구분해서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7] (사회) 김중보, 『경찰작용』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라는 경찰작용의 취지와 개념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또한 그 발동 여건인 위협의 개념을 '손해' 및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경찰작용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리인 적법 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리 남용 원칙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에서 경찰작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손해를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경찰작용의 제한 원리가 열거되어 있다. ④ 각각의 제한 요건은 예를 들어 설명되어 있다. ⑤ 경찰작용의 작동 요건인 위협을 하위 요소로 분석하여 제시되어 있다.

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두 번째 단락의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에서 정상인이 손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단락에 따르면, 경찰작용에서의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찰작용이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 갑의 기본권을 공익을 위하여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근거 법률에 따른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기 위한 절차로 인근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출받는 과정에서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10] (현대시) (가) 정지용, 『고향』 / (나) 이재무, 『장독대』

(가) 정지용, 『고향』

마주하는 현실의 고향과 과거 기억 속의 고향에 대한 정서상의 불일치를 경험한 화자의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다양한 감각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 이재무, 『장독대』

'정한수'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회상하고, 부재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말없이 뜰을 지키고 있는 '장독대'를 어머니와 동일시하며 위안을 얻고 있는 작품이다.

8.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뺨꾸기가 울고', '흰 점 꽃', '풀피리 소리', '쓰디쓰디'의 시구를 통해 청각, 시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을 동원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 역시 '정한수'의 백색 이미지, '밤새 울음', '기차의 목련 기적'의 청각적 이미지, 의인화된 자연물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수미상관의 구조는 (가)에만 해당된다. ②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나)의 마지막 행에서만 발견된다. ③ '고향에 고향에'의 반복법은 (가)에만 사용되었다. ⑤ '설의적 표현'은 (가)의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뇨'에서 발견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라뇨'를 통해 화자가 ㉠의 '현실의 고향'과 ㉡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고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쟁', '뺨꾸기', '흰 점 꽃'의 실제 자연과는 달리, '구름'은 ㉠과 ㉡의 괴리로 인해 인식처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한다.

[오답풀이] ④ 방황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A]는 현재 어머니가 부재한다는 시적 상황을 '깨끗한 기도'를 만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화자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낸다.

[오답풀이] ② '정한수'는 백색의 이미지를 통해 정결함의 속성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깨끗한 기도'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감읍한 뒷산 나무', '별꽃'의 끄덕임 등 의인법을 통해 천지만물도 감동할 만큼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지극함을 드러낸다. ④ '야행에 지친 달빛'이나 '서울행 기차' 등을 통해 화자의 방황이나 이탈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시의 마지막 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13] (현대소설) 오정희, 『유년의 뜰』

전쟁을 유년기에 체험한 서술자가 가난, 결핍, 불안으로 흔들렸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소설이다.

11.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1인칭 서술자 '나'의 독백으로 과거의 사건을 진술하는 가운데 서술자의 연상에 따라 시공간이 다른 또다른 장면들을 회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어머니가 나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인물 간에 대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을 통해 갈등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③ '거울 속에는 언제나 좁은 방이 가득 담겨 있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보듯이, 서술자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있지만 현재와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서술자는 매우 주관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찰하며 연상에 따라 머릿속 표현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12. [출제의도] 장면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는 오빠의 책 읽는 소리를 끝없이 반복되는 단조롭고 긴 소설의 노래,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오빠의 책 읽기 행위가 나에게서는 비판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 위해 화장을 하고 있는 방 안에서 오빠가 영어 책을 읽는 소리이고, ㉡은 나의 연상 속에서 오빠가 방에 없을 때 나의 머릿속에 지루하게 되풀이해 울리는 소리이다. ② 오빠는 중학교 2학년에서 학교를 중단하였는데 이후로 세 해째 같은 책을 읽고 있다. ③ 어머니가 얼굴을 분점으로 탁탁 두드리며 외출할 것임을 암시하자, 오빠는 더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서 들리는 이 두 소리는 서로 대응하며 인물 간에 형성되는 갈등을 표현한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나의 조마조마한 마음을 드러내어 긴장된 방안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13. [출제의도] 소설의 모티프에 대해 이해한다.

나는 작은오빠, 언니와 함께 놀이를 한다. 이 놀이에서도 나는 '똥보라서 날 수'가 없다. 이것은 현실의 비극적 영향력이 연극에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새로운 세계로서의 놀이 규칙의 구축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② <보기>에 따르면 놀이의 내적 규칙이란 놀이 속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병자가 누워 있다가 천사와 함께 방안을 나는 것으로 놀이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⑤ 나는 '작은 계교'를 부림으로써 놀이를 연장하려고 한다. 나는 가짜 죽음을 체험하는 놀이에서 재미를 느낀다. 이는 고단한 현실로 복귀하는 것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4~15] (수필) 이효석, 『낙엽을 태우면서』

가을에 낙엽을 태우는 과정에서 일상의 즐거움을 떠올리는 모습과, 이를 통해 생활의 의미를 돌아보며 즐거움과 의욕을 되찾는 내용의 상념이 표현된 수필이다. 글쓴이는 가을이 되어 '초록이 전혀 자취를 감추어 버린' 들판에서 '화려한 초록의 기억은 멀리 까마득하게 사라져 버렸다'라고 술회하며 감상에 젖지만, 낙엽이 타는 향긋한 향기를 떠올리며 '엄연한 생활의 자세'로 돌아가 '소년같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다짐하고 있다. 일상의 사소한 경험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이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심상을 통해 서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작품이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 글은 호흡이 긴 문장을 통해 상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⑤의 진술은 맞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에서 낙엽이 타고 연기가 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② 낙엽의 재를 '죽어 버린 꿈의 시체'라고 표현하거나, 목욕물에 몸을 담근 느낌을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한 부분 등에서 비유가 드러나 있다. ③ 낙엽이 타는 냄새(후각), 여름의 초록과 아궁이 불의 붉은색(시각) 등을 표현한 부분에서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이 드러나 있다. ④ 1문단과 2문단, 마지막 문단 등에 의문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참신하게 표현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

15. [출제의도] 작품의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보기>에 따르면 글쓴이의 삶의 자세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소한 일상의 경험이므로, 새로운 삶의 자세가 원초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⑤의 진술은 맞지 않다.

[오답풀이] ① 1~3문단에 의하면 글쓴이라는 가을을 맞아 낙엽을 태우며 화려한 여름이 지나갔음을 생각하며 상념에 잠기고 있다. ② 1문단에 의하면 글쓴이는 낙엽 태우는 냄새에서 커피와 개암 냄새를 떠올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③ 1~3문단에 의하면 글쓴이는 낙엽 태우는 향기를 맡으며 '추억'과 '감상'에 빠지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생활의 의욕을 찾고 있다. ④ 3~4문단과 마지막 문단에 의하면 생활의 의욕을 찾은 글쓴이가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모습이 구체화되어 있다.